

일. 다양한 차원의 믿음:

❖ 믿음과 표적.

- 표적이란 어떤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거나 영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기적이나 증거를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표적이란 하나님의 혼인 잔치(요 2:11)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들을 말하지만,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시내산 앞에 진을 친 것도(출 3:12)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.
-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(막 8 장 11 절).
- 그들이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위장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격분하셨습니다(막 8: 12). 아예 믿을 마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아무리 큰 표적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.
-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과 자연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표적들을 미리 주셨습니다.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"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"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(요 20: 29).

❖ 믿음의 크기.

- 믿음은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:
 - (1) 제자들의 믿음: "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?"(막 4:40)
 - (2) 베드로의 믿음: "'믿음이 작은 자여!"(마. 14:31)
 - (3) 한 아버지의 믿음: "'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'"(막 9:24)
 - (4) 가나안 어머니의 믿음: "'네 믿음이 크도다'"(마. 15:28)
 - (5) 백부장의 믿음: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"(눅 7:9)
 - (6) 스테반의 믿음: "'믿음이 충만한 사람'"(행 6:5)
- 불신의 뿌리가 뽑혀야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. 믿음의 확신이 점점 더 의심을 밀어내야 합니다. "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"(눅 17:5)라고 간구해야 합니다.
-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고 성경 연구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경험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"믿음이 점점 크게 자라"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(살후 1:3).

❖ 믿음과 감정.

- 믿음은 감정입니까, 아니면 이성적인 사고일까요?
- 이에 대한 대답은 선불리 할 수 없습니다. "내가 구원받았다고 느낀다"라고 말하는 것과, "내가 구원받았음을 안다"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.
- 질문의 근본으로 돌아가 봅시다. 믿음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?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(롬 12:3; 엡 2:8).
-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기쁘게 받으면, 다시 말해 믿음을 사용하면 기쁨, 평온함, 영적인 안도감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.
- 그러나 믿음 자체는 감정이 아닙니다. 믿음은 "확신"인 동시에 "확증"입니다(히 11:1). 믿음은 감정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.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, 나는 구원받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, 바로 그때가 가장 큰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.

이. 믿음이란 무엇인가?

❖ 믿음의 정의와 성장.

- 히브리서 11 장 1, 3, 6 절은 믿음을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.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상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.
- 바울은 히브리서 11 장에서 상급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본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많은 믿음을 행사한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소개합니다.
- 그들의 삶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크기의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. 그렇다면 지금 내가 소유한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?
 - (1)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행사하라(마. 17:20)
 - (2) 성경을 연구하고(롬. 10:17)
 - (3) 하나님께 믿음을 키워달라고 간구하고(눅. 17:5)
 - (4) 의심에 져서 포기하지 말고(막 9:23-24)
 - (5) 남의 믿음에 의지하지 말고(마. 25:8)
 - (6)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하고(갈. 5:22)
 - (7) 습관적으로 믿음을 행사함(고후. 5:7)

❖ **예수님의 믿음.**

-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시대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을 구별하는 두 가지 특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(계 14:12).
- 율법, 즉 십계명과 복음, 즉 믿음은 뗄 수 없는 하나의 개념입니다. 믿음 없이는 (십계명)에 순종할 수 없으며, 순종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“예수의 믿음”이란 무엇일까요?
 - (1)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
 - (2)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속에 삶
 - (3)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심
 - (4)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삶
 - (5) 나의 믿음의 근본은 예수님
 - (6) 예수님의 삶을 따라함
 - (7)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
-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인정을 받고(롬 5:1), 거룩하게 되며(행 26:18),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(요 1:12).